

THE KR THINK

FOMC와 춘제의 공통점

달러원 반등의 단기적 시차 소요

Global Strategist 김호윤(2168-7491)/유동기(2168-7497)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공약 구체화로 최근 달러인덱스 속도조절 흐름으로 진행. FOMC는 인플레이 속도에 대해 인지하되, 매파적 스탠스는 제한. 중국의 춘제 및 춘운 시작으로 자금 수요 증대에 따른 위안화 절상 압력이 달러원 반등의 단기적인 시차를 지연시킬 수 있는 재료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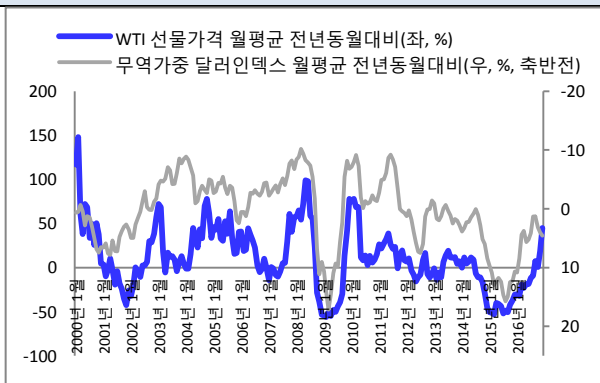
■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후 재강조된 미국 우선주의: 엘런이 매파가 될 수 없는 이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후 6대 국정공약이 발표되며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10년간 약 2천5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 4%의 경제성장 달성을 선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의 무역 정책을 통해 미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것으로 보여진다. TPP탈퇴와 NAFTA재협상을 공식화했으며, 향후 보호무역 기조가 점차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및 4월 환율 보고서를 통한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존재 한다고 판단. 다만 공급측 인플레이 속도를 고려하면 금리인상 기조는 유지하되 강한 매파성 tone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 달러인덱스 속도조절에 대한 단기적 인지로 FOMC 접근. 위안화 절하에 대한 통제 가능 수준에서 절상방향 고려

■ 달러인덱스의 속도조절로 인한 달러와 금리 디커플링에 대한 접근. 중국 춘제 영향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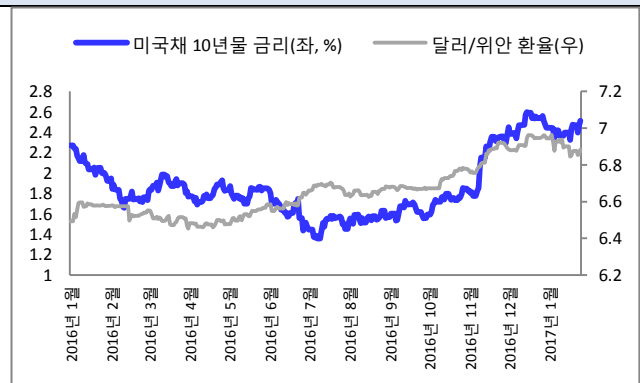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공약 구체화의 일환으로 멕시코 국경의 장벽 건설과 '이민자보호도시'(Sanctuary City)에 연방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 서명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 보호무역주의 공약에 대한 타킷이 중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안화 절하속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므누신 재무장관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 금주 중국 춘제/춘운 시작으로 자금 수요 영향이 위안화 절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달러원 반등에 대한 시차적 소요의 인지 필요.

[그림1] 트럼프와 엘런의 충돌: 인플레이와 보호무역 우려



자료: Bloomberg, KR선물

[그림2] 달러인덱스-금리 최근 디커플링: 중국 춘제 영향 고려



자료: Bloomberg, KR선물